안성원선교사 기도편지

주 소 : Legenda Wisata Zona Napoleon E8 No.20, kab.Gunung Putri, Bogor, Indonesia
전 화 : 인니 HP 62-813-8100-9905 ,한국 HP 010-87781361 미주사무실 714-774-9191
E-mail : swahn221@hanmail.net 카카오톡 ID : swahn221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6)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선교에 동역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도 저희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저희 가족들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3 월에는 인도네시아 선교사 비자를 5 년간 새로 연장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건강 주셔서 선교현장에서 선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월 18 일에는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김정태 선교사님 부부가 저의 사역지를 방문 하였습니다. 3 월 20 일에는 종골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종골교회 김정태선교사 방문)

3 월 21 일 김정태선교사 부부와 함께 깔리만딴섬을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새벽에 폰티아낙으로 출발하여 안중안신학교를 방문하여 우리가 후원하는 장학생들을 만나고 22 일 아침 예배에 설교를 하였습니다.

(안중안신학교 교수들과 회의) (후원하고 있는 장학생들)

3 월 23 일에는 항공편으로 끄따빵의 안디옥 기독고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사들과 학교 발전에 대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끄따빵을 방문할 때마다 초창기 제가 목회하던 안디옥교회 성도님의 아들인 테디집사가 저에게 방을 준비해주고 자동차를 준비해주고 맛있는 씨푸드를 대접해 주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테디집사는 저희가 파송한 인도네시아 선교사도 10 만원씩 4 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고등학교 방문)

(테디집사님이 씨푸드 대접)

3 월 27 일에는 반따르그방 빈민촌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고 30 일에는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방문하여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15 명의 대학생들을 만나고 기도와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3 월 31 일에는 현지인목사님과 함께 설립한 World Partners 선교단체에서 다니엘선교사 부부와 리안선교사를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파송했습니다. 리안 선교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학금을 주고 키워서 안중안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월 4 일에는 WP 선교회 훈련원에서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강의를 하였습니다.

(캄보디아에 파송한 리안선교사와 베트남에 파송한 다니엘선교사 부부)

5 월 13 일은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가시 방문하여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7 월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상의를 하였습니다

5 월 14 일에는 WP 인도네시아 선교사후보인 에꼬선교사를 데리고 깔리만딴섬 선교여행을 하였습니다. 새벽에 폰티아낙시로 비행기로 가서 다시 스피드보트로 6 시간을 강과 바다지나서 수까다나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15 일 주일에는 수까다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선교의 도전을 하여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도록 권면 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선교에 기도와 물질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좋은 반응을 하였고 선교헌금도 현지인 에꼬선교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험한 돌짝밭 같은 길을 차로 2 시간 달려서 끄따빵시에 도착했습니다

(끄따빵가는 스피드보트)

(수까다나교회 주일 예배)

(주일학교 어린이 특순)

16 일 월요일은 안디옥 기독고등학교에서 일일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아침 8 시에 설교와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하고 10 시-12 시에는 마가복음 통독을 하였고 오후 5 시에는 아침에 읽은 마가복음에 대한 시험을 치르고 시상을 하였습니다 저녁식사 후 예배에는 기도에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디옥고등학교 수련회 예배)

(마가복음 통독후 성경시험)

18 일에는 다시 6 인승 소형 자동차로 정글로 출발하였습니다. 6 시간을 가는 동안 여러 번 진흙탕에 빠지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오후 5 시에 무사히 도착하여 정글교회에 따잡목사부부의 영접을 받고 목사관에 숙소를 정하였습니다. 구식 화장실에 바가지로 찬물 목욕을 하고 허름한 방에 현지인 전도사와 피곤한 몸이지만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19 일에는 인근의 목회자와 전도사 10 여명과 모임을 갖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의논을 하였고 에꼬선교사의 선교에 대한 소개와 후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점심을 대접한 후에는 인근의 7 개 교회를 방문하며 교회 건축 상황을 돌아 보았습니다 재정이 없어 건축을 중단한 몇몇 교회는 약간의 건축 후원비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끄따빵 남부지역 목회자 모임)

(남부지역 목회자들)

(SP 8 교회 티미목사)

(프른다만 교회 로셀리목사)

(SP 9 교회 굴로목사와 함께)

(슬라카우안 교회 에르야니목사)

(아이르우빠스교회 유치원)

(아이르우빠스 교회 구역 모임)

20 일에는 2 시간을 정글 길을 가서 리암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교회건축이 거의 다되어 바닥과 천장 공사 만을 남겨놓았는데 나도 조금 돕기로 했습니다.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고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하여 앞으로 에꼬 선교사를 매월 5 만원씩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배 헌금도 모두 에꼬선교사에게 헌금을 하였습니다

(리암교회 에드와르목사)

(리암교회 선교의 밤)

(리암교회에서 에코선교사 선교도전)

(저녁 예배 모습)

21 일에는 110km 떨어진 단중아삼 마을로 가야하는 데 중간에 비가 와서 진흙 구덩이가 생겨서 차가 못 간다고 해서 40km 를 오토바이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3 군데가 진흙 구덩이 때문에 차가 갈수 없었는데 다행이 오토바이는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거의 8 시간을 오토바이와 차로 가서 단중아삼 교회에 도착을 하여서 레아집사 집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이집도 오래된 집에 천장이 없는 방에서 베게만 하나 주어 베고 잠을 청했습니다

(리암교회에서 110 Km 떨어진 단중아삼 마을로 출발)

(쁘리기 교회, 수쁘리 목사)

(쁘리기교회 목사관 건축)

(가는 길이 진흙 구덩이로 길이 막혀서 자동차가 지나가지 못함)

(단중아삼 마을에 무사히 도착) (강에서 빨래하는 마을 주민)

22 일 주일예배에 성숙한 교회로서 선교에 참여하라는 설교를 전하고 에꼬선교사는 선교 헌신에 대한 간증과 후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교인 중 제가 고등학생때부터 학비를 주어 안디옥 고등학교를 졸업한 구스나디집사는 지금은 중학교 교장이 되었는데 앞으로 선교후원을 하기로 하고 에꼬선교사에게 100 만 루삐아를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단중아삼 교회 주일예배) (주일학교 어린이 찬양)

22 일 주일 오후에는 빵깔란수까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성숙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역시 선교에 참여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아침에는 산책을 하다가 암으로 고생하는 띠아집사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옆집에 사는 교인도 심방을 했더니 귀한 헌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항상 도와주기만 하던 교인들이 이제는 저에게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며 이제 개척한 교회들이 성숙해가는 것을 봅니다

23 일에는 산다이교회에 가서 점심에 인근의 교역자들을 초청하여 대접을 하고 역시 에꼬선교사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기도와 헌금으로 선교에 참여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24 일에는 산다이 교회를 출발하여 차로 7 시간을 가서 폰티아낙시에 도착을 하였고 바로 비행기로 자타르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 일간의정글여행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건축된 빵깔란 수까 교회)

(저녁 구역 예배에서 말씀 전하고 선교도전)

6 월 18-23 일에는 인도네시아 선교 50 주년 행사와 선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준비하였는데 200 명의 선교사와 70 명의 자녀들이 참석하여 좋은 시간을 갖었습니다. 저는 선교사 수련회 중에 새벽기도회에서 선교사들에게 저의 간증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6 월 27 일과 28 일에는 잼보리 수련장에서 제가 개척한 자카르타 교회들의 청소년들 40 명을 초청하여 성경학교를 개최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마가복음 성경통독과 시험을 치르고 성경암송대회를 하여 우수한 학생들에게 테블렛과 USB 등을 시상해 주었습니다. 첫날 저녁예배에는 많은 아이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로 헌신하였으며, 선교에 대한 소개와 도전도 하였습니다. 둘째 날 오후에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하도록 했는데 대부분 가난한 청소년들인데 너무 좋아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을 느끼며 앞으로는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회)

(참석한 중고등학생들)

7 월 1 일에는 이용규선교사님이 설립한 자카르타 국제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안디옥고등학교 출신 에삐양과 수반디군, 종골교회 출신 화니양과 뿌뜨리양, 아가페교회 출신 판타리아양이 졸업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과 정글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장학금을 주어 영어로 공부하는 대학을 졸업하게 하였습니다 5 명의 졸업생이 앞으로 귀한 주님의 일군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월 2 일에는 World Partners 선교회에서 5 명의 선교사 후보생들이 5 개월간의 선교사 훈련을 수료하였습니다 이들은 선교비 모금을 마치면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로 파송 될 예정입니다.

(선교사 훈련을 수료한 5 명의 후보생을 안수기도 함)

끝으로 저희 가정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건강하게 선교사역을 잘 하고 있으며 지난 3 월에 장기비자를 5 년 연장 하였습니다. 조은숙 선교사는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소화불량과 불면증이 잘 치유되어 건강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용이 가정은 독일에서 생명공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7 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선용이는 삼성 계통의 회사에 취직했는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제목>

1. 개척된 40 여 교회들이 부흥되고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종골교회가 회교도의 방해가 없이 예배 허가가 잘 나오도록 깔리만딴섬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교회건물을 건축 중인데 모금이 잘 되고 건축이 순조롭게 되도록

2. 안중안신학교, 안디옥기독고등학교가 좋은 교수진과 교사들이 확보되고, 7 월 새학기에 좋은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3. 기도입양이 계속 잘되어 많은 어린이들이 장학금 후원을 받게 되고 입양된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여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4. World Partners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고 파송 된 30 명의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이 언어를 잘 배우고 선교사역을 잘 하도록, 선교 훈련을 받은 5 명의 현지인 선교사가 잘 파송 되도록
5. '바이블 타임'과 성경암송 책이 잘 보급되고 빈민 지역과 고아원에 보급할 재정적인 후원자들이 있도록
6.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며 특히 조은숙 선교사의 소화불량이 잘 치유되어 예전처럼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의용이 가정과 선용이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의 축복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선교에 동역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2 년 7 월 4 일

인도네시아에서 안성원,조은숙 선교사 올림

인도네시아 선교에 동참하시려면

GP USA Office : Tel : 1-714-774-9191

Address : Global Partnars USA,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